

### 회 요 세 평



황수주

광주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한 빙수 전문점.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4명의 가족이 테이블에 앉았다. 서로 메뉴판을 보면서 의논을 하는 가 싶더니 스마트폰에 다들 집중한다. 얼마 후 주문한 빙수가 나오자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빙수를 먹는 자녀들과 부모님. 다 먹는가 싶더니 모두 또 스마트폰만 쳐다 본다. 이 가족이 실제 나는 대화는 메뉴 선정하는 것이 전부이지 아닐까 싶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 데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청소년. 그러나 신호등은 빨간불이다. 차가 바로 앞에 오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청소년. 나도 놀랄 수밖에 없다. 빨간불인데도 보행자가 튀어나오다니.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눈과 귀를 모두 막고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오직 스마트폰만 공손히 모신다.

중학생인 아들이 엄마한테 욕을 했다

### 스마트폰, 사용권만 주세요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배운다. 좋은 콘텐츠도 많지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도 많다. 작년에 초등학교생들 사이에 유튜브 통해 확산된 자살송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며 자책하다가 결국 자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SNS에 자해 인증샷과 자해 동영상 등을 올리는 경우도 많아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이용 콘텐츠에 대한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생활 필수품이 됐다. 스마트폰의 교육적인 효과나 그 효용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마트폰을 둘러싼 온라인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너무 많다.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하라고 키를 맡기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위험한 물건이고 아직은 운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전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훈련을 시킨다.

스마트폰은 기능적인 특성으로 게임 중독, SNS 중독, 웹툰 중독, 음란물 중독 등이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폰을 그냥 알아서 사용하라는 것은 자녀를 유해환경에 노출시키고 방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제대로 절제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고 소유권을 다 줄 것이 아니라 사용권만 줘야 한다. 자녀에게 스마트

폰을 넘겨주는 순간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스마트폰의 세상에는 유튜브와 게임, 웹툰 등 재미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자녀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기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실에 별도의 반납함을 만들고 거기에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다. 부모님들도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은 어렵다. 모든 가족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의 사용시간만 통제할 것이 아니라 어떤 앱을 사용하지 유해한 앱이 아닌 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한다. 청소년의 연령대에 맞는 게임 등을 추천하고 연령대를 넘어설 경우는 과감히 삭제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시간과 주 사용용도와 어떤 장소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킬 수 있는 구체적 규칙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대화법도 중요하다.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녀 스스로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습관과 이용조건 습관을 위해 부단히 협상하고 지도해야 한다. 습관을 형성하는 데 66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수련의 기간일 수도 있다. 그 과정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광주스마트센터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이병철의 골프기 인문학을 만나다



#### <6-1> 라이프니츠의 골프경영

영혼의 영역에서는 명료함을 찾고 물질 세계에서는 실익을 찾아라. 이론과 실천 결합이라는 명제 붙들고 이론의 현실 응용을 애쓴다. 인간의 이성만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실천이라는 생각이다. 이론에 근거한 실천이다. 수학자 라이프니츠는 철학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본질적인 자유의 철학자이다. 정치적 사회적 자유 개념이 아닌 인간 자유의 개념을 모색한다. 우주와 신, 신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볼굴의 저술가로서 서신교류가, 세계 시민주의자로서 꺾히는 라이프니츠는 철학, 수학, 물리학, 기계 기술, 지리학, 법학, 어학에 두루 능통했다. 팔방미인으로

순수학문과 실용학문 모두에 능통했던 다재다능의 아이콘이다. 데카르트와 함께 유럽 근세사에서 대표적인 복합 천재로 일컬어지는 전설적인 학자이다. 미적분을 먼저 발명한 건 뉴턴이지만 현재 전 세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미적분의 기초나 이론은 모두 라이프니츠가 만든 체계를 쓰고 있다. 결국 미적분의 실용화에 가장 기여한 이가 바로 라이프니츠이다. 또한 라이프니츠의 생각은 20세기의 분석철학과 언어철학까지 예견했다. 모든 사고와 언어를 하나의 통합된 원리에 따라 이해한다. 논리학을 형이상학을 여는 열쇠로 사용한 철학자라고 버트런드 러셀은 강조한다.

박학다식한 라이프니츠는 끊임없이 개신교인들을 내놓고 새로운 기술제안들을 쏟아내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한다. 아이디어의 사상체계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명제이다. 이론은 모나드이며 예견조화이다. 실천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모나드는 자신에게 속해있지 않는 모든 속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속성들이 실재화하여 표현된다. 골퍼가 골프스윙을 하여 불이 날아갔다면 클럽으로 불을 때린 것이 아니라 스윙을 한 행위, 불이 날아간 사건은 제각각 독립



적으로 신이 예정해 놓았고 이것은 한치의 오차 없이 벌어지기 때문에 불을 임팩트되어 날아갔다고 생각하게 되는 예정조화이다. 아이디어가 땀과도 생각이다.

라이프니츠의 시간은 사물들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선한다는 절대적 시간론에 대항한다. 존재하는 것은 사물들만 있는 것이며, 시간이란 이러한 사물들이 맺는 특정 관계일 뿐이라는 관계적 시간론을 펼친다. "나는 공간을 시간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상대적인 것으로 여긴다. 시간은 동시에 공존하지 않는 것들의 질서다. 이

로써 시간은 변화의 보편적 질서가 된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특정 행동을 한다. 이를 충분이유율이라고 한다. 시간은 운동의 수라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뒷받침하면서 지속 시간이라는 것은 주기적 운동의 수를 통해 알려진다고 주장한다. 시간은 어떤 외적 대상과도 관계하지 않는다는 시간의 절대성에 반하여, 시간은 동시에 공존하지 않는 것들의 질서이며 관계 안에서 시간을 파악한다. 시간은 라이프니츠의 존재론적 틀 내에서 그 존재론이 허용하는 사물들로 완전히 환원된다.

시간이란 경험되는 대상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주기적 운동을 드러내는 사물들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시간적 규정성에 대해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물에 앞서 존재하는 그러한 시간이란 없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구체적 개체들뿐이다. 심장을 시계로 삼아 뛰는 것을 측정함으로써 사물들을 통해 관념적으로 시간을 구성해 내는 우리들 오직 이런 것들만이 존재한다.

골프칼럼니스트, MFS골프코리아 소속 프로, 체육학박사

### 광주 기초의원 자질 아직도 이 정도라니

광주지역 기초 의원들의 수준 이하 의정 행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제 좀 나아졌으리니 하면 역시나 터져 나오는 일탈 행태에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초의원 자질론과 함께 기초의원 폐지론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허위출장서를 내고 시민형세로 관광여행을 다녀오는 가하면 심사절차를 무시하고 해외 연수를 떠나는 등 그 행태도 가지가지다. 서구의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문제는 이들이 자랑 '지방의원 연수 규칙'을 무시하고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광주시당 지방의원 국외 연수 규칙'을 만들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는 해외연수 3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 자문과 심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10일 전이나 계획서를 제출, 심

사도 받지 않은 채 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구정장 요청 시 자체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자체 심사도 건너뛰는 꼼수를 부렸다고 한다. 2억8,150만원에 달하는 5·18 40주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재정투자 심사도 거치지 않는 등 부실한 의정활동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북구의회는 의장을 비롯 윤영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이 허위 출장서를 내고 통영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여론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은 통영시의회를 시찰한다는 명분으로 혈세를 타내 출장을 갔으나 사적 여행만 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광산구 모의원은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지방의원들의 일탈을 제어하는 강력한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한전공대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야

차질 없는 한전공대(가칭) 설립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보수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에 극복하고 속도감 있는 대학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것이다. 광주·전남 범시민 지원위원회는 지난 6일 정치권과 정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광주·전남지역 5개 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발표하고 속도감 있는 한전공대 설립을 주문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전공대 설립을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산업발전의 핵심 임을 지지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한전공대가 호남만의 지역 대학이 아닌 대한민국 에너지 메카의 핵심 축이자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핵심 연구시설이라는 것이다. 오는 2030년까지 약 3경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특화

대학 임을 감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원위는 이날 3개 항을 채택하고 그 이행을 정부와 한전, 정치권에 요구했다. 정부는 한전공대 기본계획에 따라 한전공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지원하고, 한전은 일부 반대 의견에 동요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정치권은 여야가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할 것 등이 그것이다. 지원위는 앞으로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까지 호남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 상공회의소들도 지역경제발전의 구심체로서 차질 없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전공대 질 핵심 연구시설이라는 것이다. 오는 2030년까지 약 3경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특화

### 권오봉 여수시장 개인 안위가 우선인가

#### 기시수첩

여수시가 바람 잘 날 없다. 주요 개발 현안사업마다 민간 사업자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한편, 지난 정기인사에서는 불공정 시비와 함께 시의회 갈등 프레임까지 이어가면서 지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각종 구설수로 여수지역은 시끄럽지만, 정작 권오봉 시장 취임 이후 민선 7기 여수시정은 말 그대로 '무색무취'하다.



김영민  
정기부 부장

일탈다 할 지역발전 선도사업 하나 살펴보기 힘들뿐더러, 동력 없는 시정을 운영으로 지역 정체(停滯)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세계박람회 개최로 '미항 여수' 일대는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올랐지만 관리 소홀로 그 명성은 잊지 못하고 있다. 올 초부터 방문객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해 8월 말 기준 여수를 찾은 누적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4,000명 줄었다. 일각에서는 "여수시가 이미 관광활성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중고생 1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한 '청소년 100원 버스' 운영에 대한 여수시의 '도입 불가' 입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권 시장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버스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지역 버스회사의 운영난이 예상된다"며 "시가 보존해야 할 운영 적자액이 커지기 때문에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은 어렵다"고 답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각종 축제의 경성 경비를 줄여서라도 도입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권 시장은 검토 여부에도 응색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개최사 등을 통해 권 시장의 소통 부재와 피동적인 시정운영에 직접 발언을 토해내기도 했다.

여기에 권 시장은 민감현안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권 시장은 경찰 수사 중인 일각에서는 "여수시가 이미 관광활성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중고생 1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한 '청소년 100원 버스' 운영에 대한 여수시의 '도입 불가' 입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지역 발전보다 개인 안위에 치중하는 모습에 지역민의 냉소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 특지 광 장

5분이란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화재발생시 5분의 시간은 생명을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는 시간이다. 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차가 사고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5분. 하지만 불발주차 및 차량 양보를 안 하는 일부 운

### 생명 살리는 길 열어주세요

전자 때문에 '소방차 길 터주기'가 잘 안 되어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도로나 아파트 부지 내 황색으로 '소방차 전용'이란 표기가 되어 있는데도 주차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소방차 앞에 끼어드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

1분 1초가 너무 소중한 때 사이렌을 울려도 비켜주지 않을 때는 많이 답답하다. 양보하지 않거나 불법 주차자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갓길이나 횡단보도, 건물이 많은 지역에 불법 주차·정차하는 양심불량 행동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범칙금이 부과되는 건 물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솔선 실천하여 화재현장 신속진압과 응급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한 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온전하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화소상생서예방안전과 최성영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신고	182	▲인강알고콜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1989년 6월 29일 창간	<b>전남매일</b>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b>박희철</b>	대표이사·발행인 <b>김용만</b>	주필 <b>李斗憲</b> 편집국장 <b>朴元雨</b>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편 집 부 (062) 720-1070	기 시 제 보
경 제 부 (062) 720-1066~67	기 획 실 (062) 720-1005	• TEL (062) 720-1050-54
사 회 부 (062) 720-1050-54	논 설 실 (062) 720-1032	• FAX (062) 720-1080-82
사 회 2 부 (062) 720-1043-45	월 간 국 (062) 720-1006-07	• E-mail jndn@chol.com
동 부 권 본 부 (061) 743-4200-01	관 리 국 (062) 720-1012	광 고 문 의
서 부 권 본 부 (061) 285-9816-17	판 매 국 (062) 720-1098	• TEL (062) 720-1016-17
문 화 체 육 부 (062) 720-1071-72	사 업 국 (062) 720-1011	• FAX (062) 720-1020
사 진 부 (062) 720-1040	광 고 국 (062) 720-1016-17	• E-mail jnm11000@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주 주:한정사주주:한정사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